

한교총, '한국 기독교 140주년 기념 심포지엄'

'교회와 사회, 미래를 향한 성찰과 도전' 주제로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김종혁 목사)은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 기독교 14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는 교계 지도자와 신학자, 각계 인사 15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교총은 한국 기독교 140주년을 맞아 지난 3월부터 다큐멘터리 제작을 비롯해 문화유산 탐방,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덕주 김리교신학대학 명예교수는 시대정신과 한국 기독교 역할과 한계를 성찰하고, 자유 민주, 평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면서 1885년 4월 5일 한국 땅에 언더 우드와 함께 처음 발을 디딘 이전 웨일러의 기도가 현재도 유효함을 강조했다.

임희국 장신대 명예교수는 "오늘날 한국교회는 사회적 신뢰를 상실하고 위기에 처해 있다. 한국 교회가 다시금 사회 앞에 공공성과 민주정신을 회복하고, 생명·정의·평화의 새 세상을 실현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서의 선한 공동체로 다시 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교총 대표회장 김종혁 목사(예장합동 총회장)는 주제 발표에서 "140년 전 조선에 뿌려진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능력이었다"며 "한국교회는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덕주 김리교신학대학 명예교수는 시대정신과 한국 기독교 역할과 한계를 성찰하고, 자유 민주, 평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면서 1885년 4월 5일 한국 땅에 언더 우드와 함께 처음 발을 디딘 이전 웨일러의 기도가 현재도 유효함을 강조했다.

임희국 장신대 명예교수는 "오늘날 한국교회는 사회적 신뢰를 상실하고 위기에 처해 있다. 한국 교회가 다시금 사회 앞에 공공성과 민주정신을 회복하고, 생명·정의·평화의 새 세상을 실현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서의 선한 공동체로 다시 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교총 대표회장 김종혁 목사(예장합동 총회장)는 주제 발표에서 "140년 전 조선에 뿌려진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능력이었다"며 "한국교회는 다시

다음세대 부흥의 불씨 지핀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G2A 컨퍼런스' 10월 3일 킨텍스 개최, 10시간 연속 예배

한국교회 성도 1만천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무려 10시간 동안 예배와 친양, 기도에 집중하는 초 대형 집회가 올 가을 열린다.

오는 10월 3일 개천절,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 3·4·5홀에서 진행되는 '2025 G2A' 집회가 그 무대다.

이번 집회에는 국내외 교회와 선교단체 130여 곳이 참여한다. 평촌 새중앙교회, 광영교회 등 지역교회와 함께 제이어스, 아이자 아씨스티원, 예수전도단 서울화요모임, 팀워십 등 청년 사역팀이 각각 예배 인도를 맡는다.

강사로는 《크레이지 러브》 저자인 미국 프랜시스 챈 목사를 비롯해 국내외 복음주의권 목회자·선교 리더들이 말씀과 기도의 메시지를 전한다.

지난 14일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G2A 디렉터 김준영 대표는 "이 운동은 몇몇 단체의 회의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순종하



며 탄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본교단 나의교회 담임 과 병윤 목사도 "부모 세대가 물려준 부흥의 유업을 우리 세대가 이어 받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다"

며 "전국 사역자들을 만나며, 다음 세대와 함께 이 부흥을 새롭게 일으키자는 마음이 G2A로 모아졌다"고 했다.

G2A는 이번 집회를 단발성 행

사로 끝내지 않는다. ▲중고등

교 ▲대학교 ▲직장 · 일터 ▲목회자 · 신학생 ▲복음 전파 ▲타 분야 전교 선교 등 6개 사역역별 '애프터 액션(After Action)'을 구체적으로 준비 중이다.

'2025 G2A' 입장권은 현재 인터파크에서 예매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www.g2a.co.kr)나 카카오톡 채널 (@gotoall)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간증/개척수기/감동스토리 미담사례/개교회소식/독자투고 070-7132-0091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천은광교회 김상기 목사는 미취학아동 16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돌봄 사역과 마을 진입로 보수 등

교회의 지역 섬김 사례를 발표했

다. 진접소망교회 최형길 목사는

지역아동센터와 공부방을 기반으

로 한 아동교육사업을 통해 "학습

능력 향상과 진로 상담은 물론 전

인적 돌봄의 단계로 나아갔다"며,

"지지혜와 협력을 통해 다양한 지

원사업도 끌어낼 수 있었다"고 전

했다. 또한 그는 "중소도시 교회들

의 돌봄 사역은 저출산뿐 아니라

지방소멸 위기 대응의 핵심 전략

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CIS 관계자는 "이번 컨퍼런스

는 법·제도 개선 이후 종교시설

의 공적 활용을 현실화할 수 있는

첫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전했다.

대학총장포럼, '2025년 대학총장 하기연수회' 개최

'AI 시대의 교육 환경의 변화와 기독대학의 대응' 주제



대학총장포럼(회장 정상운 성결대 총장·평택대 이동현 총장, 횟불트리니터신학대 오덕교 총장 등 36명이 참가하여 기독교 대학들의 나이갈 방향과 대안을 심도있게 개진하며 대안을 모으는 시간을 가지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내년 2026년 '대학총장 하기공동 해외연수회'는 조지아와 아르메니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신대 황현경 총장, 평택대 이동현 총장, 횟불트리니터신학대 오덕교 총장 등 36명이 참가하여 기독교 대학들의 나이갈 방향과 대안을 심도있게 개진하며 대안을 모으는 시간을 가지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내년 2026년 '대학총장 하기공동 해외연수회'는 조지아와 아르메니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신간 소개

건강칼럼1

본지에 10여 년 동안 건강칼럼을 기고하고 있는 목포 한시랑병원 원장 조생구 원장이 40여 년의 의료 경험과 건강 노하우를 담은 '건강 칼럼1'을 출간했다. 이 책은 '생활습관 교정, 규칙적인 운동, 정기 건강검진'으로 10년 더 살 수 있다는 조 원장의 건강 철학이 담긴 연작이다.

'건강칼럼1'은 조 원장이 방송과 신문에 기고한 약 1,300여 편의 칼럼 중 530여 편을 정리하고, 이중 196편을 엄선해 600여 페이지에 걸쳐 10개 장으로 구성했다.

책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시작 ▲소화기 질환과 식습관 ▲심혈관 질환 예방 ▲호흡기 건강 ▲호르몬 균형 ▲신장 건강 ▲암 예방 ▲갑염병 예방 ▲뇌 질환 관리 ▲중독 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한다.

저자 조생구 원장은 "현대인은 무병장수를 꿈꾸지만, 건강 나이가 높으면 오히려 살기 어렵다"며 "생활습관 관리와 교정 가능한 위



험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건강 나아를 짧게 유지하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잘못된 생활습관을 접두하고 건강한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길잡이를 제시한다. 조 원장은 "이 책이 독자들에게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후속권을 통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제공한다.

저자 조생구 원장은 "현대인은 무병장수를 꿈꾸지만, 건강 나이가 높으면 오히려 살기 어렵다"며 "생활습관 관리와 교정 가능한 위

예수와 공자, 관계를 말하다



인간관계,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기술은 놀랍도록 진보했지만, 마음과 마음은 점점 더 멀어졌다. 분명이 별별할수록, 인간관계는 더 깊은 혼란과 상처를 안고 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진심으로 이해받는 경험은 점점 드물다. 이 책은 이 혼란의 한가운데서, 두 위대한 고전, 예수와 공자의 가르침을 통해 '관계의 본질'을 다시 묻는다.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공자는 인(仁)과 예(禮)를 통해 질서와 조화를 추구했다. 각기 다른 시대와 문화, 종교의 길을 걸었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뜨겁고 절실히 통찰을 전해준다.

이 책의 특징은 인간관계의 뿌리를 철학과 신앙의 시선으로 성찰한다. 예수와 공자의 인간 이해와 관계 원리를 비교하여, 실천 가능한 지혜로 풀어내고 있다.

부부, 부모, 친구, 원수, 사회적

관계까지 모든 관계의 현실을 다루며, 사랑 vs 예의, 규범 vs 은혜의 긴장 속에서 관계 회복의 방향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오늘 다시 쓰는 오류와 팔복, 그리고 관계 진단 워크북을 통해 일상 속에서 관계를 회복할 실제적인 길을 안내한다.

저자 이숙 목사는 현재 7군단 예하 대대 교회에서 군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다.

저자 이숙 목사는 현재 7군단 예하 대대 교회에서 군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다.

저자 이숙 목사는 현재 7군단 예하 대대 교회에서 군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다.

저자 이숙 목사는 현재 7군단 예하 대대 교회에서 군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다.

저자 이숙 목사는 현재 7군단 예하 대대 교회에서 군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다.

저자 이숙 목사는 현재 7군단 예하 대대 교회에서 군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다.

저자 이숙 목사는 현재 7군단 예하 대대 교회에서 군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다.

저자 이숙 목사는 현재 7군단 예하 대대 교회에서 군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다.

저자 이숙 목사는 현재 7군단 예하 대대 교회에서 군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다.

저자 이숙 목사는 현재 7군단 예하 대대 교회에서 군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다.

저자 이숙 목사는 현재 7군단 예하 대대 교회에서 군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다.

저자 이숙 목사는 현재 7군단 예하 대대 교회에서 군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다.

저자 이숙 목사는 현재 7군단 예하 대대 교회에서 군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다.

저자 이숙 목사는 현재 7군단 예하 대대 교회에서 군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다.

저자 이숙 목사는 현재 7군단 예하 대대 교회에서 군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다.

저자 이숙 목사는 현재 7군단 예하 대대 교회에서 군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다.

저자 이숙 목사는 현재 7군단 예하 대대 교회에서 군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다.

저자 이숙 목사는 현재 7군단 예하 대대 교회에서 군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다.

저자 이숙 목사는 현재 7군단 예하 대대 교회에서 군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다.

저자 이숙 목사는 현재 7군단 예하 대대 교회에서 군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다.

저자 이숙 목사는 현재 7군단 예하 대대 교회에서 군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다.

저자 이숙 목사는 현재 7군단 예하 대대 교회에서 군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다.

저자 이숙 목사는 현재 7군단 예하 대대 교회에서 군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다.

저자 이숙 목사는 현재 7군단 예하 대대 교회에서 군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다.

저자 이숙 목사는 현재 7군단 예하 대대 교회에서 군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다.

저자 이숙 목사는 현재 7군단 예하 대대 교회에서 군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다.

저자 이숙 목사는 현재 7군단 예하 대대 교회에서 군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다.

저자 이숙 목사는 현재 7군단 예하 대대 교회에서 군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다.

저자 이숙 목사는 현재 7군단 예하 대대 교회에서 군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다.

저자 이숙 목사는 현재 7군단 예하 대대 교회에서 군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다.

저자 이숙 목사는 현재 7군단 예하 대대 교회에서 군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다.

저자 이숙 목사는 현재 7군단 예하 대대 교회에서 군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다.

저자 이숙 목사는 현재 7군단 예하 대대 교회에서 군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다.